	<b>인도네시아(자카르타) 통상사무소</b> <b>해외동향보고서</b>	작성팀	마케팅지원팀
		담당자	하원정 소장 이영훈 과장
		일시	2022.07.26.

## CEPA Insight

- 5배 높은 감염력을 보유한 변종 바이러스 발생, 인니 코로나 확산 예고
- 인니, HS코드 개정으로 수출·입 진행 시 코드 재확인 필요
- 한-인니 CEPA 7월 비준 전망으로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확대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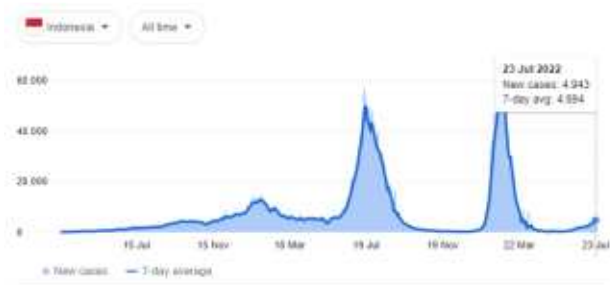
### < 2022년 6월 기준 對 인도네시아 교역현황 >

구분	수출액	전년 동월대비 증감율	수입액	전년 동월대비 증감율	무역수지
전국	840,525천불	20.2%	1,070,385천불	42.7%	△229,859천불
충남	89,018천불	115.8%	76,672천불	115.3%	12,346천불

※ 출처: 한국무역통계(<http://stat.kita.net/>)

## ■ 5배 높은 감염력을 보유한 변종 바이러스 발생, 인니 변이 확산 조심

- 인니 內 자카르타 거주 주부 및 어린이, 발리에선 호주 관광객 확진 판정
  - 강한 전파력을 갖고 있는 'Omicron BA.4', 'BA.5' 하위 변종에 이어 이보다 더 강력한 감염력을 보유하고 있는 'BA.2.75' 하위 변종이 인니에서 발생
  - 보건 당국은 'BA.2.75' 감염으로 확인된 주부와 어린이는 발열, 인후통, 기침 증상이 있으며 이미 지역 전파가 시작 된것으로 발표(출처: 한인포스트, 2022.07.18.)
- 일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, 지난 3월 이후 가장 많은 4천명 이상 기록
  - 인도네시아 COVID-19 신규 확진자는 지난 3월 말 이후 가장 많은 4천명 이상 기록(출처: 한인포스트, 2022.07.18.)
  - 특히, 보건 당국은 Omicron 하위 변종이 Delta 변종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COVID-19 병상 점유율이 지난 6월 23일 2.03%를 기록한 이후 계속 증가하여 7월 13일 기준 3.22%를 기록했다고 밝힘



### < 2022년 7월 23일, 코로나19 확진자 >

(출처: 주인도네시아대사관, 2022.07.23.)

## ■ 인니, HS코드 개정으로 수출·입 진행 시 코드 재확인 필수

- 개정된 HS코드 11,552개 기록, 기존 대비 5.6% 증가(출처: 코트라, 2022.07.20.)
  - 인도네시아가 올해 자국의 HS코드인 'BTKI(Buku Tarif Kepabean Indonesia)' 분류 체계를 개정하면서 코드수 11,552개 기록, 2017년 대비 5.6% 증가
    - ※ 이번에 개정된 'BTKI'는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세계관세기구(WCO)의 'HS 개정'과 아세안 회원국이 채택하는 'AHTN(아세안 통일 관세 명명법)' 반영
  - 이번 개정을 통하여 총 111개의 선박 부품이 추가 되었으며 관세율은 0%, 이는 수입 부품을 이용한 선박 생산량을 증가시켜 인니 조선 산업의 생산 경쟁력을 강화 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 된 것으로 해석
    - ※ 선박 부품 외에도 '바틱(Batik)'을 포함한 일부 섬유제품, CPO, 일부 농수산물, 호흡 장치/ 환풍기, 전기 자동차 관련 제품 등이 추가
    - ※ 다음의 URL을 통하여 HS코드 확인 가능(<https://www.insw.go.id/korelasi-btki>)

## ■ 한-인니 CEPA 7월 비준 전망,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확대 전망

- 양국 교역, 투자 확대로 새로운 경제성장 기회 창출(출처: 자카르타경제신문, 2022.07.18.)
  - 인니 무역부는 한-인니 'CEPA(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)' 비준이 7월 국회에서 승인 될 것으로 전망, 상품 시장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92%, 한국 95% 관세 철폐 예정
    - ※ 한-인니 CEPA는 지난 2020년 12월 18일 양국이 서명, 한국은 2021년 6월 비준되었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직 의회 절차를 밟고 있는 중
  - 특히, 이번 CEPA 발효 시, 양국의 농업, 어업, 임업, 인프라, 정보기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및 투자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(출처: 한국무역협회, 2022.07.04.)

## ■ 현대차, '스타게이저' 출시, 인니 內 자동차 시장 점유율 확대 주력

- 현대차가 만든 다목적 MPV 신모델, '스타게이저' 실물이 21일 공개
  - 이는 동남아 시장을 겨냥하여 설계된 소형 MPV로 TOYOTA, HONDA가 장악한 인도네시아 MPV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고급화 및 다양한 보증 서비스를 지원(출처: 한인포스트, 2022.07.19. / 한국경제, 2022.7.21.)



< 스타게이저 내·외부 사진 >

(출처: 현대자동차)

- 2022년 6월 기준, 인니 현지 자동차 판매 토요타가 1위, 다이하츠 2위 기록
  - 인도네시아 '자동차사업협회(GAKINDO)'의 6월 자동차 유통 통계에 따르면, 올해 1분기 기준 465,252대의 신차가 팔렸으며,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9% 상승
    - ※ TOYOTA는 146,202대를 판매해 시장 점유율 31.4%를 차지하며 1위 기록, 뒤를 이어 DAIHATSU가 90,765대로 19.5% 점유율을 기록하며 2위를 차지
  - 현대차-울링모터스(중국) 간 경쟁이 여전히 치열한데, 소매 기준 울링모터스(10,721대)가 현대차(9,429대)를 앞서고 있으나, 도매 기준으로는 현대차(11,282대)가 약간 앞서고 있음

## ■ 자동차 관련 부품 기업, 인니 內 자동차 시장 진출 검토 필요

- 한-인니 CEPA 협정 비준, 인니 자동차 시장 성장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 수혜 전망
  - 인니 자동차 판매수치는 아세안 국가 중 최대, 앞으로 5년간 매년 6% 이상 성장하는 등 상당히 중요한 시장으로 떠오를 예정(출처: BMI;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)
    - ※ 2022년 기준 판매량 약 146만 대, 생산량 163만 대 규모로 확대 될 것으로 전망
  - 또한, 한-인니 CEPA 협정으로 자동차 강판에 쓰이는 철강제품과 일부 자동차 부품의 관세가 폐지되는 등 자동차 생산에 따른 물류비용이 상당부분 절감 될 것으로 예상
- 현대차, 인니 신차 출시로 점유율 확대 전망, 관련 기업의 현지 진출 검토 필요
  - 현대차의 인도네시아 현지 신차 출시 완료 및 공장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, 도내 자동차 부품 관련 중소기업도 현지 시장 진출 적기로 예상

## 해외시장 및 경제동향(7월)



- 단, HS코드 변경 및 전기 자동차 HS코드가 이번에 새로 추가된 만큼, 인도네시아 수출·입 진행 시 HS코드 재확인을 권장 -> **충남FTA활용지원센터(☎ 041-539-4534)** 적극 활용 추천. **끝.**